



체럴 에이 에스플린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성찬—영혼을 위한 재생

영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재생시킵니다. 성찬으로 우리가 약속받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 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자매님이 우리 나이라면, 무엇을 알았으면 하시나요?” 지금 답을 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성찬의 중요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성찬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장로님은 ‘성찬식에 내재된 권유 중 하나는 성찬식을 진정한 영적인 경험의 시간, 즉 성스러운 교감을 하고 영혼을 재생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권유’¹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주 성찬식을 “진정한 영적인 경험의 시간, 즉 성스러운 교감을

하고 영혼을 재생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성찬 기도를 듣고 우리의 성약을 다시 맺을 때, 성찬은 영적으로 강화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² 이 약속에 대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두어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³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 기억하겠대!”⁴고 약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모으시고 성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축복하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니라.”⁵라고 하였고, 그다음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도들에게 마시라고 주시면서 “내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하여 흘린 …… 내 피를 기억하는 것이니라.”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인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후기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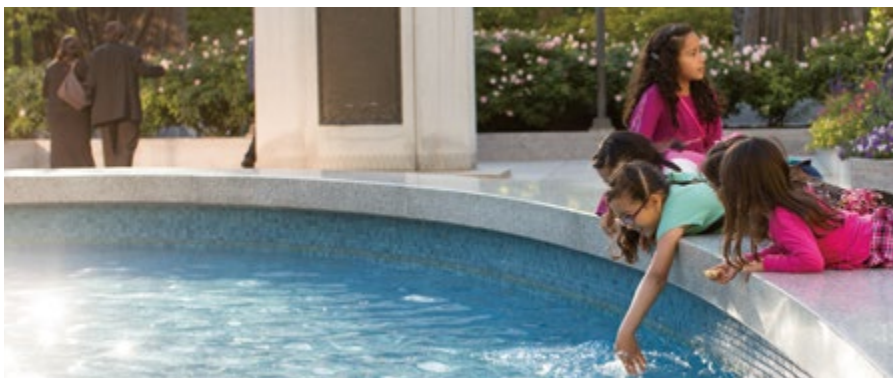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짧은 성찬 의식 동안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아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구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선택, 행동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⁸

성찬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⁹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¹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기회가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복음의 힘이 우리 삶에 찾아와 더 큰 평안과 영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한 그분의 구속과 특별한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성찬은 진실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 지도자는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을 취하고자 노력할 때 어떤 힘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지도자는 개인 발전 기록부의 요건을 완수하기 위해 성찬 찬송과 성찬 기도 문구에 집중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터였습니다.

매주 그녀는 성찬 의식 동안 스스로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전에 지지른 실수를 떠올리며 다음 주에는 더 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자신이 “속죄에서 회개 부분을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그런 자아 성찰 후에 우울함과 비판적인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속죄의 큰 부분인 그리스도의 특별한 권능을 경시하고 있다는 뚜렷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능력을 넘어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주께서 도와주셨음을 계속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주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인식하자 기쁨이 찾아왔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던 자녀의 필요 사항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날에도 친구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참지 못하던 일에서도 인내심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제 삶에 깃든 구주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제가 거쳐 온 회개 과정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성찬이 어떻게 치유와 정화의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중에 다음 성찬식까지 일주일 동안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주님의 영을 손상시키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송스럽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 용서를 얻기 위한 방법은 ……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한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받은 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적합한 상태에 이르러, 용서받을 수 있는 성찬 탁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찬 집행 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영이 함께함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짐이 들려지는 느낌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에 합당하고 진정으로 이를 바라는 영혼에게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¹¹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재생될 수 있는 이유는 빵과 물이 구주께서 희생하신 그분의 살과 피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떡”¹²이자 “생수”¹³가 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가 다 먹고 마신 후에, 보라,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라.”¹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재생시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찬으로 우리가 약속받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¹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을 취할 때면, 자주 마음속으로, 부활하신 구주께서 마치 사랑 가득한 품 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준비가 된 것처럼 두 팔을 벌리시는 모습의 그림을 상상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그림을 생각하면 제 영혼은 거의 구주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듯이 고양됩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¹⁶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때 구주를 대표합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팔을 뻗어 신성한 상징물을 전달하는 것은 마치 구주께서 직접 자비의 팔을 뻗어 우리 각자가 그분의 속죄 희생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사랑의 선물, 곧 회개와 용서, 위안과 희망의 선물을 취하도록 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¹⁷

성찬의 중요성을 더욱더 숙고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더욱더 신성하고 의미있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96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불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든데요. 왜 교회에 가세요?”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찬식이니까. 나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

우리 모두가 성찬식이 “진정한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스러운 교감을 하고 [우리] 영혼을 재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¹⁸ 준비하여 그곳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성찬을 통해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영을 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283.
2.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3.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가 되기 위하여”,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67쪽.
4. 교리와 성약 20:77, 79.
5.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22(경전 안내서 323쪽)
6.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24(경전 안내서 323쪽); 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2:15~20.
7. 제3니파이 18:7, 11; 교리와 성약 20:75 참조.
8. “나는 구주를 항상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어떻게 지키는가?” *와서 나를 따르라* 주일 학교 교과 과정; lds.org/youth/learn/ss/ordinances--covenants/remember;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88~90쪽 참조.
9. 교리와 성약 20:77.
10. 요한복음 14:15.
11. Melvin J. Ballard, Melvin R. Ballard,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132-33.
12. 요한복음 6:48.
13. 요한복음 4:10.
14. 제3니파이 20:8~9.
15. 교리와 성약 20:77.
16. 제3니파이 9:14.
17. 이 원리에 대한 앤 메드슨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18.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283.



치 홍 (샘) 왕 장로
칠십인

단합하여 구조하십시오

구주를 도우려면 우리는 서로 단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부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조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¹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신약전서의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이야기는 회원과 선교사들이 와드 평의회를 통해 함께 단합하여 구조하러 나아가는 방법을 잘 보여 줍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화는 항상 고무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야기에선 중풍에 걸린 남자가 나오는데,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감독님에게서 중풍에

걸린 남성의 집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 및 아론 신권에서 각각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사람인 전임 선교사 중 한 명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와드 평의회에서 와드의 필요 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한 후, 감독님은 “구조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네 명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그 남성을 돕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남성이 스스로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정으로 가서 그 형제를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예수께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니다.]”(마가복음 2:3)

